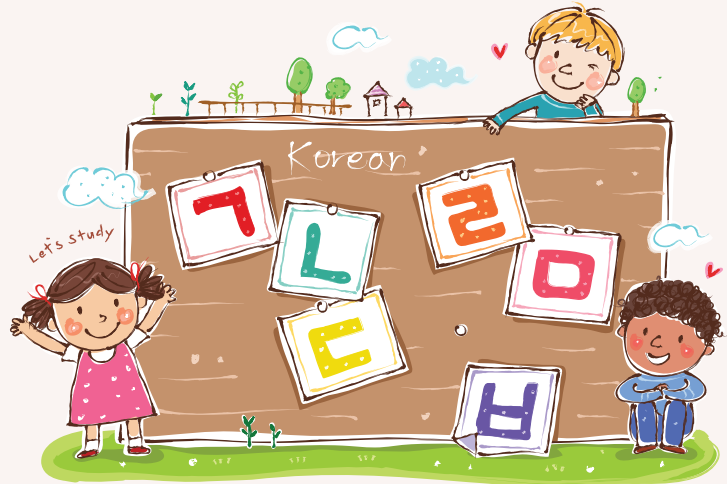




#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에서 한국어 교육을 말하다



**김화중**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교육원장

## 1. 개요

파라과이 공화국은 남미의 중앙에 위치한 국가이다. 국명은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해서 흐르는 파라과이강(Paraguay River)에서 유래한다. 과라니어로 ‘para’는 ‘강’, ‘y’는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이나 물과 관련된 이름으로 해석된다. 파라과이 언어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원주민어)가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스페인어 못지않게 과라니어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

수도는 아순시온(Asuncion)으로 위성도시까지 합치면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다. 국토 면적은 약 40만 7,000km<sup>2</sup>로 내륙국인데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독일보다도 큰 면적으로 한반도의 약 1.8배이다. 인구는 2021년 기준 7,219,641명으로 세계 105위이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는 1962년 6월 12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대사관 등 한국에서 파견된 기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파라과이와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상호 협력해 왔다. 현재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을 통한 정보화 기기 지원, 첨단교실 구축 및 원격교육을 통한 교사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KOICA의 교육방송국 구축, 교통, ICT, 보건 분야 지원 및 봉사단 파견 사업 등으로 대한민국과 파라과이는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 파라과이 교육시스템

파라과이 교육은 교육법 제27조에 정규 교육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초교육(유치부), 초등교육, 중등교육(중학교와 고등학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등록금이 있는 유상 교육이다.

기초교육은 3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세 가지 지식영역의 개발을 기반으로 하며, 각 학습 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차원이 제시된다. 제시된 이러한 모든 차원은 학습목표의 달성을 고려한다.

기초 학습 교육 과정(초등학교, 중학교)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수준의 참여를 옹호하고 학생의 특성, 발달 및 운영 상황에 따라 학생 중심 학습을 촉진한다. 각 단계에서 지속적이고 형성적인 과정으로서 의미 있는 학습, 가치 교육, 놀이 활동의 통합, 창의성 개발 및 평가를 영구적으로 추구한다. 각 단계별 학습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

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에서는 4개 영역을 지향하며, 그 영역은 의사소통(모국어, 제2언어, 예술적 표현), 자연환경과 건강(자연과학, 건강 및 체육), 사회생활과 일, 수학이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에서는 9개의 영역을 지향하며, 그 영역은 자연과학, 건강을 위한 교육, 체육, 사회과학, 일과 기술, 수학, 예술교육, 모국어(스페인어와 과라니어), 제2외국어이다. 중학교(7~9학년)에서는 11개의 영역을 지향하며, 그 영역은 자연과학, 건강을 위한 교육, 체육, 사회과학, 일과 기술, 수학, 예술교육, 모국어(스페인어와 과라니어), 제2외국어, 개인 및 사회생활, 윤리 및 시민교육이 해당된다.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scientific Baccalaureate), 기술고등학교(Technical Baccalaureate)일반고등학교로 구분한다. 과학고등학교는 기초 과학 및 기술, 사회과학, 예술 영역에서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고등학교의 운영 목적은 취업 가능성과 기업가 정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훈련하여 직업 활동을 위해 적절하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현재 산업, 농업 및 서비스 분야 27개의 전문 교과에서 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 3. 한국어 교육의 현황

### 가. 교육원 현황

파라과이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은 대

한민국에 우호적인 현지 분위기 덕분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한류(korean-wave) 열풍에 힘입어 젊은 층의 한국어 배우기 붐이 일고 있다. 2022년 현재,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아순시 온 시내에 있는 24개의 한국어 채택 학교에 한국어 강사와 한국어 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18개의 교육원 한국어 강좌와 6개의 교육원 한국어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채택 학교 학생 7,000여 명, 교육원 강좌 수강생 750여 명이 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교과로 채택하기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고, 교육원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수강생이 있지만, 교육원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의 부족은 가장 큰 어려움이며 해결 과제이다. 현재 파라과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약 5,000여 명 정도로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능력 있는 분이 많지 않다. 또 한국과 물리적으로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파라과이까지 한국어 교육을 위해 파견을 희망하는 분이 없다는 것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다.



그림 1 — 한국어 채택 학교 문화행사

#### 나. 현지 교육방송국(Educanal)을 통한 한국어 교육 실시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2022년 1월 10일 (평일 오후 7:30~8:00)부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프로그램명은 ‘Maitei Corea’이다. ‘Maitei’는 과라니어로 ‘안녕하세요’를 의미하며, 현지에서 친근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교육방송국(Educanal)을 통해 월요일은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팝송 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한글 자모부터 한국어 기초회화 등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금요일은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가운데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방송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방송을 통해 한국어와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채택 학교와 교육원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또 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Youtube, Facebook, Instagram 등의 매체와 현지의 TV 등을 통해 내 보내고 있다.



그림 2 — 한국교육원(CECP) 한국어 골든 벨



그림 3 — 교육방송국(Educanal)과 MOU 체결



그림 4 — 한국어교육방송

#### 다. 한국 Animation 방영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요청하여 한국 아리랑 TV를 통해 한국 Animation을 가져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00~5:30(약 30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영하고 있다. 제목은 ‘KIOKA’, ‘ANIMAL RESCUE’ 2편이며, 현지 시청자를 위해 스페인어로 더빙된 작품이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 제작하여, TV 등을 통해 방영하고, 교육방송국에서 Animation을 방영하기 바로 전에 그날 방영되는 내용을 요약 및 설명하는 동영상도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 라. ‘한국 알기’ 동문 단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매체가 있다. Roxana Duarte de Baez 장학사를 비롯한 전임 교장, 교육과학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Organizacion de ex

alumnos de los programas de Understanding Korea’단체이다. 이들 중 ROXANA를 중심으로 한 3명이 한국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2019년에 6개월간 연수를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 문화 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1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모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22년도에도 응모하여 선정되었다. 이 단체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간단한 책자도 만들어, 일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다.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이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 역사, 한국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스페인어 및 영어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양 기관은 26종 48권의 자료를 보내와, 이 단체에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이 단체가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시범 수업을 한 학교에서는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한국어를 교과 과정에 채택하여 수업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림 5 — Irrazabal Mutti 공립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알기’행사

#### 4. 파라과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어 교원 양성

대한민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파라과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충원이다. 그럼에도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 이에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2013년부터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에 한국어교육학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4년부터 한국어교육학과에 한국어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첫 졸업생 2명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2022년 현재 19명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을 소지하고 졸업했다. 이들은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 한국어 강사(7명), 한국 파견기관 취업(4명), 한국으로의 유학(4명) 등 파라과이 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도에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한국어교원 양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어 강사, 장학금 및 교재 인쇄비 지원 등을 포함한 MOU를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와 새로이 체결했다.

##### 나. 파라과이 현지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의 승인

파라과이에는 이와 같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기반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현재 파라과이에서 한국어가



그림 6 — 2021년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총장 Prof. Dra. Claudelina Marin Gibbons)와 MOU 체결



그림 7 — 교육부 장관(Nicolas Zarate) 면담



그림 8 —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교육과정 담당 국장 면담

제2외국어로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파라과이에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가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제2 외국어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어도 영어처럼 외국어로서 공식적으로 교육과학부가 승인하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2022년 4월 5일 교육과학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이다.

파라과이 교육시스템에서 한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상급 학교 진학 시 한국어 평가 점수가 활용될 수 있다면, 파라과이 사회에서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에 심취한 학생 및 수강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외동포의 자녀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 5. 마무리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은 파라과이 교육과학부가 빠른 시일 안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승인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어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파라과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다면,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파라과이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한국과 파라과이의 우호적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를 넘어 남미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발 더 내디뎌 본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격언을 떠올리며,



### 필자 소개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졸업,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캐나다 유학, 교육부 교육연구관, 서울강현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